



충청북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 충청북도의회는 7월 7일, 7월 10일 각각 제272회 임시회·제273회 정례회를 열고 제8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등 현안을 심의하였다.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선출

의장 이대원
부의장 최재욱 · 이범윤 의원 선출

충청북도의회는 7월 7일 ~ 8일까지 이틀 동안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제272회 임시회를 실시하였다.

7월 7일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 후 실시된 의장 선거에서 이대원 의원이 충청북도의회 19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최재욱 의원·이범윤 의원이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8일과 10일 실시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거에서는

- 의회운영위원장 : 이영복 의원
- 행정소방위원장 : 연만흠 의원
- 교육사회위원장 : 임 현 의원
- 산업경제위원장 : 박종갑 의원
- 건설문화위원장 : 이언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박영웅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제273회 정례회

충청북도의회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273회 정례회를 열어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기타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동의안,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농축산농가안정화대책추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서원대정상화방안에 대한 건의문과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관계부처, 정당 등에 전달하였으며, 결산검사 요청에 대한 직무연찬과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 회 사

예산편성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당부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속에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다시 뭉개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동안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2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민선4기 출범 2년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5조원이 넘는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 충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3회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의 중간 점검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그리고 교육청의 2회추경 예산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하절기 무더위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연초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해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도민의 뜻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맞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 대비하고 국제유가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 대책과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가 우리 8대 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첫 회기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150만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곡~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을 채택 당부

이 필 용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부내륙 철도 노선 중 이미 확정된 수서~이천~감곡역을 제외한 미확정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의 중요한 기간철도망인 중부내륙 철도의 노선은 150만 도민과 충북 전체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국도해양부안인 감곡~생곡~주덕~이류~살미~수안보 안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노선이 채택되면 얼마 전 착공식을 가진 주덕·이류 기업도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생곡역이 생길 경우 인근 태생국가산업단지 및 기업도시가 차량으로 10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음성지역 동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 수서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대에 진입 가능하게 되어 청주공항 순환 전철의 완결권이 되어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하는 충북 중부내륙지역이 서울 동남부권과 직선 전철노선으로 연결되므로 공항 활성화는 물론 혁신도시, 태생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충북에서도 내륙경제자유지역 지정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이고, 생곡역에서는 낙후된 과산까지도 차량이동 20분대에 있기 때문에 과산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 광 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도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모태인 행정도시는 충북도민의 꿈과 열정이 서린 결과물임에도 충청북도가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며, 청주·청원 통합문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과 정파, 지역의 이해를 떠나 지금 시기는 충북에게 위기의 순간이며,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단양 수중보건설 조속한 추진 촉구

김 화 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단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중보 건설을 위해 도정의 총력 지원을 기울여 주셨고, 이제 그 결실이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4만 단양군민과 10만 출향 군민이 학수고대하며 단양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중보건설의 첫 삽이 떠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열정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양 수중보 사업은 청와대에 청원한 뒤에도 수자원공사의 반론이 오랫동안 이어져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지금은 KDI 심사가 상정되어 올 10월로 수중보 건설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단양 군민들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굳은 약속을 믿고 경제와 문화의 불모지에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움을 건설했던 단양군은 풍부한 수위 유지를 기대했던 충주호의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단양군의 숙원인 수중보가 건설되면 충주호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촌이 건설되면서 이와 연계한 '충주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 단양군의 자치역량 강화 및 북부권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KDI 심사가 군민의 뜻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 정우택 지사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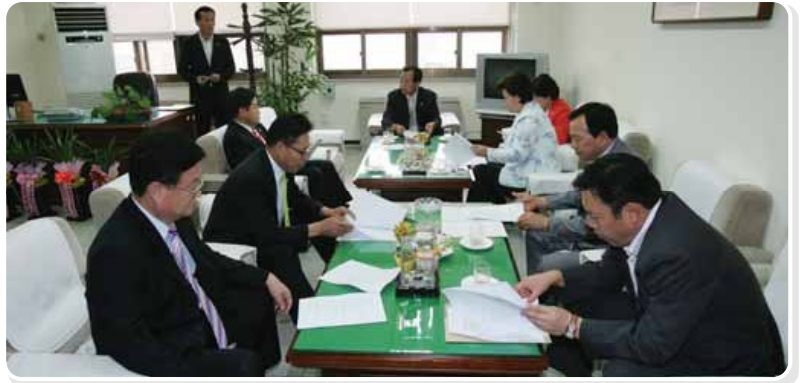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7월 7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영복)은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최광옥)을 선임하고, 제27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2008년 7월 1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제273회 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개최하여 7월 10일에는 도의 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의결 및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적극 홍보의 대책강구와 규정을 규칙으로 상향 조정한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국외 연수가 테마가 있는 차별화되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등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274회 임시회는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의사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

7월10일 회의에 앞서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업무보고 청취

7월 10일 의회사무처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른 사기진작대책 촉구 등 정책 대안 제시



▲ 결산심사 7월 11일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흡)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7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1차·제2

차 행정소방위원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과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충청북도의 3년간의 결산상 세수추계 오차율은 2005회계연도 23.0%, 2006회계연도 17.8%, 2007회계연도 8.6%로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충북도 전체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지속적인 노

력으로 오차를 4~5%대까지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 2월 23일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7년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1,772억 9,200만원 중 6.3%인 111억 700만원만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약 되었으며 수입도 예약금에 대한 이자수입 4,300만원 발생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여유자금의 예약과 예약금의 운용 계획수립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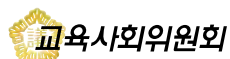
그리고 예비비는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모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출해서는 안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보면 중국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운동 교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 사업 등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사례임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7월 15일~16일 양일간에 걸쳐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

소관별 주요내용을 보면, 공보관실에 대해

서는 도정홍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을 촉구하였으며, 행정국은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에 따른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적체 해소 등 사기진작 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책관리실은 도민참여예산방안의 활성화와 2009년 목표액인 9.1% 증가한 2조 4,000억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전략적 예산확보계획의 구체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7월 4일자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된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살기좋은 소방안전문화는 한 발 앞선 현장 대응체계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의식이 중요한 바, 이에 대한 실증적인 계획과 실행을 당부하였다. 그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및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운영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실행을 주문하였다.

그밖에 제8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의 의정자문위원으로 김창섭 공인회계사, 주성대학 김혜란 교수, 세명대학교 고숙희 교수를 선임하여 의정역량을 제고하여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일본 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음모 규탄 결의문 채택



▲ 간담회 7월 10일 위원회 소관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예산안심사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73회 정례회 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본 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음모 규탄 결의문과 서원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의하는 등 회기 내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7.11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장애수 당 집행안액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여 소극적인 사업집행을 지적하고 좀 더 정확한 수요과목과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월된 일부 사업비중 부적절한 사고이월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명시이월비로 그 취

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는 등 적절한 절차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채무부담행위 승인액 대비 채무부담액이 과도하게 초과하였음을 지적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상황을 감안 재정 운용의 경직성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 시 본 사업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이자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계상하여 승인 요청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했다.

이어 열린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사업 등 5건에 2억 3,0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복지과 교육분야에서 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농축산농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등 현안심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농축산농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과 소관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조례안 심사, 그리고 경제통상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11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일부 과목에서 과다한 예산을 불용한 것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사업의 사전계획 및 예측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7월 14일에는 제2차 산업경

제위원회를 열고 정윤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하였다. 이어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7월 15일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충북테크노파크 등 위원회 소관 4개 재단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한 연구원과 우장명 연구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국제곡물가격,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여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 감에 따라 정부와 국회차원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수립을 촉구하는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간담회 ▶

7월 15일 농축산농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업무보고 청취

7월14일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촉구 건의문 등 현안처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는 미불용지보상금이 이월된 사유와 예산편성시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어떤 지원을 하는지와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교육청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교육청 이관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가에 대하여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당부 하였으며, 상리도로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진도가 50%밖에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재난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데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당부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축소·조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행복도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변함없이 건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과 2009년도 정부 예산에 당초 계획대로 100%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였으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

간담회 ▶

7월14일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업무보고 청취

7월15일 균형발전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불용액 최소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



▲ 결산심사 7월 17일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충 청 북 도	26,419	23,694	2,725
충청북도교육청	14,454	13,007	1,4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웅)는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7월 17일에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소방·교육사회·산업경제·건설문화)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

충청북도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2조 6,419억원 세출결산액 2조 3,694억원으로 세계잉여금 2,725억원이 발생하였고, 2007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으로서 지난해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773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3건에 대하

여 10억원이 지출되고 5억원이 이월되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1조 4,454억원 세출결산액 1조 3,007억원으로 1,44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호우 및 화재피해 복구비, 배상금 지급 등 3건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04억원이 증액된 1조 6,291억원이며, 이중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사업추진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등 6개사업에 대하여 7억 91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의 정확한 세수추계, 고질적 체납액 정리, 과오납금 반환 최소화 등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의 근본적 해결책 강구와 세출부분의 이월금 과다발생, 예비비의 과다채정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강구 시행을 주문하였다.

지방의회의 내실화와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최 재 옥 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15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를 개원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마감하고 후반기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충청북도 의회 부의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교역할에 충실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충청북도 의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충청북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청북도를 전

국에서 으뜸가는 경제특별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우리 의회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각오와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관행과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홍보채널을 통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범 윤 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렇게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충청북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치의 흔들림과 주저함이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제7대 충청북도 의회에 등원하여 6년간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도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또 진정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삶에 지친 소외된 계층과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을 어루만지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충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다양한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15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도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이를 위해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도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으로 의회의 뒤편 실질적인 대안 개발과 정책 분석기능을 확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모쪼록, 저의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 민생을 바쳐 도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운영



이 영 복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의원 제도가 2007년 시작된 유급화를 기점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많은 의원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컬어 왔던 지방의회는

여느 때 보다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새로운 지방의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민선 4기 전반기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충청북도는 무려 15조 8,700 여억원이라는 전국 제일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둬으로써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미래를 가일층 가시화한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충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기를 맞이한 것과는 달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맞물려 치솟는 국내 물가로 인해 도민의 근심은 날로 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함께 찾아온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8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게는 어떻게 하면 충북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뜻을 잘 받드는 진정한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회의규칙과 의회관련 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8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결집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발

현될 수 있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둘째, 탄력적인 의회운영으로 의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빠르게 모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충실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정발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의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도민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도정전반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과 더불어 충북발전에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합과 조화로 신뢰받고 활력있는 위원회 구현



연 만 흙 위원장
(행정소방위원회)

도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 상임위원회인 제8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소방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이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며,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

면서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북도의 회를 선도하는 선임위원회로서, 특히 도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여 그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과 인력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충북 건설을 위해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확인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실한 민의(民意)의 대변자가 되어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150만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간직해 오직, 150만 청풍명월의 도민여러분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행정소방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의 선진화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임 현 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먼저 당선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육사회위

원회에 거는 도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과 학부모님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의 추진사업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케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현장 중심의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 및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에 주력하겠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도·군간 교육격차 해소,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감없는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적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짐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이 잘살고 행복해지도록 의회 역할 강화



박 중 갑 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벌써 20여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준거(準據)가 될 자치단체 법령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

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소관부서로 하는 위원회로 이들 부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업무를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예산 활용을 감시함으로써 해당 부서가 도민을 위해 주어진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최근에 이룬 큰 성과를 거양하는데 중요한 몫을 해냈습니다. 우리 도가 7월 초 현재 투자유치실적이 %개 기업 15조 8,721억원에 이르는 쾌거를

거두면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나, 올 초부터 반지가 시작한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류사육 농가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도만 2004년 이후 전국 유일의 AI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집행부와 축산농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제8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저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도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의 각종 시책이 도민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 감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민의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의원 개개인의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을 분석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겠으며 늘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이 연구 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새 정부 출범이후 촛불집회와 고유가
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기에 제8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마
무리하고 하반기 개원과 함께 건설문화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
낍니다.

전반기 동안 풍부한 경험과 지식, 탁월
한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전임 위원장님의 든든한 기
초 위에 초선 의원으로서의 열정과 패기
를 조화롭게 접목하여, 더욱더 활기차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물론 집행부와
의 관계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후반기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
다. 우선 우리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낙후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역 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BT관련 국책사업의 지
원 및 유치, 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 행복
한 주거 공간 마련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둘째, 경제발
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 산업
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
성, 완벽한 재난예방대책추진을 통한 재
난사건안전대책 강구는 물론, 혁신·기
업도시건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선진
도 5대전략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이 자긍심을 갖
고 있도록 하겠으며, 청주공항활성화, 국
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 구축,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통
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을 실현
하는 한편, 청정 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
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최선
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진심
어린 충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도민의 생
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
리 도민 모두의 바램인 '잘사는 충북 행
복을 도민' 실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



박 영 응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대 충청북도의회 하반기 첫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
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 도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
도 있는 예산심사로 고효율 저비용의
생산적 도정이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
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편익의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
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유사사
업의 통·폐합 실시 등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을 도입 운영하여, 충청북도
의 기본계획을 고려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발전계획에 맞게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복지예산은 분배를,
지역개발예산은 집중과 분산 및 효율
성을 중시하며,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
공하는 농업의 예산은 복지개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식량위기
를 대비하는 예산이 되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효과
가 도민 모두에게 균등히 과감되고 항
유될 수 있는 사업, 광역적 통일이 필
요한 사업,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정운용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
모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잘사는 충북건설을 앞
당겨 실현하여 도민 모두의 행복지수
를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처리의안

1.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2008.4.18.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한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 심의 삭제 등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 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수정내용]

• 안 제26조의 안 별표2의 충청북도학생교육

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 징수
액을 오전 13만원 → 12만원, 오후 16만원
→ 15만원, 야간 20만원 → 18만원으로 조정

3.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 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각 시·도학
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
을 토대로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임

[주요내용]

• '학교설립예정지' 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
습환경 보호

[수정내용]

• 안 제4조 제1항의 위원의 자격에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31조'로 수정함

4.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과 제정·폐지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
용 법령 변경 등

5. 충북과학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원 안가결

[제안이유]

• 설립주체를 명시하여 독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
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현재 사용중인 「충북과학대학」을 설립주
체를 표기한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함

6.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
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
하려는 것임.

[수정내용]

•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 안 제7조제2항제1조 중 '종합계획'을 "기
본계획"으로 한다 등.

7.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 원안가결

8.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 출 승인 의 건 : 원안가결

9.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건의문 : 원안가결

11. 농축산물가 안정화대책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12.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탄압 결의문 : 원안가결

13. 서원학원 정상화 방안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인하여 대외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경제전반에 엄청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疏通不足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 국론이 하나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不撤晝夜 국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까지도 행복도시건설사업이 縮小・調整될 것이라는 여론이 擴散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理由は 제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행복도시는 “當初計劃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능을追加해서 自足的인 面貌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한 뒤 정부가 出帆한지 140여일이 지나도록 代案提示는 물론 여론악화에 따른 아무런 立場發表가 없었으며 지난 7월1일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지

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을 강조했고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없을것이라고 밝히신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복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정부예산 사업비가 국가재정운영계획서상에 반영된 사업비 8,768억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4,119억원밖에 검토되지 않고 있음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을 축소・조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도시는 當初 계획한대로 변함없이 건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2009년도 정부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100% 반영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잘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농축산농가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정세균 민주당 대표님, 이화정 자유선진당 대표님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곡물 가격과 국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과 화학비료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농어민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는 2012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공급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등 각종 유류가 작년 대비 최대 90%가 인상되어 시설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곡물수요의 증가와 호주의 작황부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사료비의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 여파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2~3년간 화학비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등 우리의 농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축산 농가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의 시행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의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현실적 정책제시 그리고 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을 통한 농어민들의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임시방편적인 농어민 지원대책 보다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즉각 부활하여 비료값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하나, 사료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일본교과서 왜곡 및 독도강탈 음모 규탄 결의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영토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럽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사회편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하겠다는 망언을 자행함으로써 이러한 망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512년) 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진리 속에서 또다시 패망의 길로 회귀하려는 몸부림과 다른 없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150만 도민은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 일본정부와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듭된 망언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명백한 침략적 주권침해 행위로서 이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응징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키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국제사회의 우호교류 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일본과는 향후, 어떠한 국제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평소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교육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당대의 번영은 물론 후대의 향학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북 교육문화의 요람인 충청북도 청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서원학원이 일련의 학내 분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중부권의 명문사학이며 우수한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정의 핵심에 계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 애써 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충북 서원학원이 겪고 있는 학내분규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인 서원학원은 서원대학교를 비롯한 산하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대학교는 개교 이래 40여년간 3,000여명의 교원을 배출 하였으며 지금도 연간 100여명의 교원을 배출하는 교원 양성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명문사학 법인인 서원학원이 지난 1992년 이사장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이후 촉발된 서원학원 학내분규가 내우외환을 겪으며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원학원 산하 5개 중,고등학교

교 총 동문회를 중심으로 학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학원 장기발전 청사진 요구 등 연이은 학내 분규로 인해 지역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서원학원이 학원 정상화를 통해 명실상부 지역교육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충북지역 인재양성의 산실인 서원학원이 학원 분규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역 화합의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바,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해 서원학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도정 제1의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강도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분규의 장기화로 인해 충청북도의 교육목표인 인재양성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 및 도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조속히 학원이 정상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원칼럼



박 재 국 의원
(행정소방위원회)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속에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세계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산업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산업들의 저변에 우수인력이라는 막강한 자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비용' 때문이다. 구직자들은 대기업이나 높은 연봉을 쫓아다니고 중소기업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현장은 항상 인력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들은 실업난을 호소한다.

특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수한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지역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지역이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할 때 지역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55개국 중 4위로 매겨졌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3위로 매겨졌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최상위로 양적 우위성은 가지고 있지만, 대학교육의 질에 있어서는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대학 교육이 못

따라 간다는 얘기다.

이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후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과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대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은 많지만, 쓸만한 인재는 적다는 게 기업들의 오랜 불만이다. 경쟁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데 1인당 평균 20.3개월 동안 6,200만원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상당 부분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대학교육이 우위에 서지 않고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은 인력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핵심은 특성화·전문화이다.

특히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중심 대학도 필요하지만 특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강의실에만 머무는 교육으로는 더 이상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이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커리큘럼도 기업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캠퍼스로 옮겨야 하며, 대학을 기업의 연구개발실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정형화된 산업에서 실용적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습득과 훈련기간이 마치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과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방소재의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을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없다. 기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내부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있는 기업으로서 인재 확보 부문에서 만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절실할 것이다. 지역대학은 이제 신규 인력공급을 위한 인재양성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인력에 대한 재교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에 힘써 기업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야 할 것이다.

독자칼럼



심 의 보 교수
(충청대 사회복지학부)

충북도의회가 이대원 의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범을 하였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충북도의회! 칼 프리드리히(C. Friedrich)의 말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의 회! 토크빌(Tocqueville)이 이야기하듯 '지방의회는 자유를 민중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향유하고 활용할 지를 가르쳐 준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출범을 기대하며 축하한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만 60년이 되는 금년!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회갑을 맞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가? 한한 잔치상이라도 벌여야 할 만큼 진정한 자유민주

주의 지방의회로 우뚝 서 있는가? 지방정부의 예산의 승인이라는 재정상의 권한과 조례제정에 관여하는 입법권, 지방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심의·비판하며 지방행정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중재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파수꾼으로 스스로 서 있는가?

충북도의회가 아닐지라도 오늘의 지방의회의 자화상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 서 울시의회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져 나오기 무섭게, 부산·경기 등에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리와 성추문에 이어 난투극을 벌이는 지방의회의 갖가지 추태가 연일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솔직히 원인이고 대안이고 따질 것 없이 한숨이 나온다. 그렇다고 지방의회, 나아가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지방정부의 정체성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 휘말리고 있는 사태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역발전 정책'이란 이름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보며 도민의 중지를 모아 우리의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지방의 자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경제가 중앙의 종속적인 성향이 극심한 때문이며, 지역사회의 비합리가 상존한 때문이며, 장구한 전통을

지향하는 충북문화의 탁월성이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가 이처럼 역사적 주목을 받은 시대는 없었다. 충청권이 총체적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논하며 국토의 중심부로 등장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언제나 충청권은 역사의 주변부로 서울권이나 영호남에 밀려왔다. 이제 비로소 충청권이 그 긴 기지개를 펴며 포효해야 할 때이다.

행정복합도시의 건설과 충북의 역할! 이를 중심으로하는 청주 국제공항이 그 규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오송과 오창의 BT, IT 산업도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충주호와 북부권의 개발이나 남부 3군의 발전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천문학적 수치의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뿌리내리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의 문제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고려해 해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서울공화국의 한계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모를리 없건만 수도권의 압력으로 이 또한 불안하다. 논리의 시대에 살면서 동시에 모순의 시대에 살고 있고, 평화롭지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발전과 사회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욕구가 강조되면서 중앙정

부가 국민생활의 세세한 영역에까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더 이상 국가에 모든 것을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사회적 통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의회는 감시하고 견제하고 독려해야 한다. 여전히 의회의 위치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학이 부재하고 윤리가 전도되어 가히 가치관의 아노미상태에 이른 지금, 지방의회는 자율성을 근본요소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기관리를 가능케 하고 인간적 성숙과 가치를 높여 주게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공공적으로 지역의 물질적 성장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을 달성케 하는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역사에 책임지는 지방행정자에게 그렇게 가르쳤겠는가! 지금이아말로 지역사회의 의회를 재인식할 때이며,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서의 깃발을 들어올리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북도의회의 출범에 축하와 기대를 갖는다.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 된다!”

충청북도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부 의 장
최 재 옥 (증평 1)



의 장
이 대 원 (청주 2)



부 의 장
이 범 윤 (단양 2)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



이영복
(보은 2)



연만흠
(증평 2)



임 현
(영동 1)



박종갑
(청원 2)



이연구
(충주 1)



박영웅
(옥천 2)

파악



최광옥
(비례)



강태원
(비례)



최미애
(비례)



권광택
(청주 6)



김법기
(청주 3)



김화수
(단양 1)

의정



강태원
(비례)



김환동
(괴산 1)



김광수
(청주 1)



민경환
(제천 2)



김인수
(보은 1)



권광택
(청주 6)



권광택
(청주 6)



박재국
(청주 4)



이범윤
(단양 2)



박영웅
(옥천 2)



김화수
(단양 1)



김인수
(보은 1)



김법기
(청주 3)



이필웅
(음성 2)



이중호
(제천 1)



송은섭
(진천 2)



오웅식
(괴산 2)



심흥섭
(충주 2)



이규완
(옥천 1)



장주식
(진천 1)



정윤숙
(청주 5)



심흥섭
(충주 2)



이규완
(옥천 1)



이중호
(제천 1)



이필웅
(음성 2)



조영재
(영동 2)



최광옥
(비례)



이영복
(보은 2)



이기동
(음성 1)



한창동
(청원 1)



최미애
(비례)



최재옥
(증평 1)



한창동
(청원 1)

의원동정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7월 22일 영동군 양산면에서 열린 축청교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7월 15일 충북낙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낙농업농협중앙회 회원가임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연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0월에 충주 기금면 가흥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고미술축제 상임고문으로써 축제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8월 29일 증평 보강천 일원에서 열린 소방 한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예정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민주당)

7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2호점 개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7월 16일 청주시 북대2동 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이백일장 시상식에 참석, 수상자 노고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7월 1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결과 설명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8월 15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개최 될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예정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7월 18일 청주시 흥덕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군항발전협의회 토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7월 18일 단양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열린 석회석신소재 재단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7월 26일~27일 보은 알프스 수련원에서 보은군 가족캠프 주최로 열린 화합 및 체력단련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한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7월 10일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충북회장이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시상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7월 17일 단양군 영춘면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7월 18일 청성면에서 열린 한두레 권역과 한국자연환경연구소 1사1촌 자매결연식에 참석, 상호협력방안 당부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7월 23일 단양군 다리안 관광지에서 열린 한여름 들뜬 다리안 콘서트에 참석, 관람객 및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8월 1일 청주라마다 호텔 특별기획전시관에서 열린 '잃어버린 문명의 유산 세계 불가사의 유물전'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7월 24일 제천청풍문화재단지에서 열린 도·시·군 홍보담당자 연찬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7월 19일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열린 바들교 기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7월 4일 괴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여성주간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7월 23일 음성군 감곡면 감곡농협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 수렴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7월 17일 여성정치세력연대 행사에 참석, 지방의회의 역할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강의 및 관계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7월 22일 충주시 탐금잔디구장에서 열린 제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7월 20일 옥천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충청북도지사기 차지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개최식에 참석, 선수단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7월 18일 초평저수지수련원에서 열린 제14회 충북육외광고협회충북본부 광고인 하계수련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최광옥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7월 24일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에서 친환경농산물에용촉진교실 개최, 교육실시 및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7월 18일 보은군 수한면에서 열린 전천후케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7월 28일 충주 MBC '집중토론' 생방송(주제:반기문 브랜드)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참석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7월 25일 영동에서 열린 노근리사건 합동위령제에 참석, 추모 및 당면현안사항 논의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7월 11일 전국제철대비 충청북도 씨름선수단 평가전을 주관,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7월 16일 청원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 창립기념식에 참석, 기념사 및 참가자 격려

